



즐거워라

9

2026년

루게 제 445호 월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6 ISSN 1727—9062



표지: 개선헌년공원유희장에서

경치좋은 모란봉기슭에 자리잡은 개선헌년공원 유희장에서 배그네를 타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성원들의 얼굴마다에 기쁨이 넘쳐 흐른다.

사진 김영호

2 ||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여

8 || 공화국의 불변진로

9 || 자주, 자존의 원칙

10 || 인민의 나라

수기

12 || 애국자라고 불러주시며

13 || 아이들을 위해 바치신 시간

일화

14 ||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던 나날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15 || 활성탄공예 《국색전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16 || 쏘베트냐, 인민혁명정부냐?

조국방문

18 || 개선헌년공원유희장에서의 하루

인상기

20 || 애국의 감정을 승화시켜준 나날이었다

20 || 참된 조선청년으로 준비해가겠다



편지

21 || 나날이 변모된다

애국의 넓은 대를 이어

22 || 바치는 마음

교향소식

24 || 압록강기슭에 솟아난 대농장도시

28 || 인재발동을 중심고리로

30 ||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여

34 || 새로운 종이생산기술을 확립한 연구집단

36 || 수요가 높은 의료기구들

38 || 오류를 향해가는 소녀

40 || 두번째 해수욕계절을 맞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46 || 단고기료리전문식당

48 || 천연제품으로 인기를

50 || 취재길에서 만난 사람들

52 || 명승지 삼지연

54 || 천연기념물 백두산돌꽃

55 || 민속무용 《수박춤》

력사이야기

56 || 흙산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문송연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여

오늘 우리 나라는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의 흐름속에서도 끄떡없이 자기 발전의 곧바른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비약하고있다.

그 비결은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혁명과 건설에 일관하게 견지하여온데 있다.

자주는 국가건설의 변함없는 근본원칙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과학이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견지해오신 자주적인 혁명로선과 혁명방식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길에 우리 혁명의 승리가 있고 민족만대의 번영이 있다는 바로 이것이 총결기간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의 주되는 총화이라고 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와 제7기 제5차전원회의, 제8기 제6차전원회의를 비롯한 력사적인 당회의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족자존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 혁명의 근본초석으로, 기초로 된다고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새로운 병진로선과 자강력제일주의,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등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밝혀 주신 독창적인 사상과 로선들의 밑바탕에는 우리가 갈길은 오직 자주, 사회주의의 길이라는 그이의 억척불변의 신념이 놓여있다.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어나가기려는 그이의 위대한 뜻과 의지는 우리 국가의 힘과 기상으로 되고있다.

력사는 자기의 존엄과 자존심은 남이 지켜줄 수 없으며 자체의 힘으로 난국을 타개하고 앞길

을 열어나갈 때만이 진정한 자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력사의 교훈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강력제일주의로 우리 나라를 자력번영의 새시대로 령도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공장과 농어촌, 건설장 그 어디에 가시여서도 자력자강이 제일이고 자력쟁생만이 살길이라는 신념,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뿐이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시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쟁생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일해



검덕의 산악협곡도시



단천발전소 1단계 공사가 성과적으로 완결

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돌이켜보면 당 제8기기간에만도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실로 무수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실체들이 이 땅우에 솟구쳐올랐다.

금속, 화학공업부문이 주체화실현의 큰걸음을 내짚었고 농업부문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전력, 기계공업, 경공업부문에서 소중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꿈아보기조차 아름답고 우리 인민도 놀라울만큼 이룩된 그 성과들에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의 원료, 자원에 의거하여》라는 말이 주해마냥 울리고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어랑천발전소, 수도 평양에 일떠선 새 거리들과 삼지연산악관광지구, 검덕지구에 펼쳐진 산악협곡도시, 량포온실농장과



함주군에 건설된 지방공업공장들

신의주온실종합농장, 새시대 농촌혁명강령과 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하는 현대적인 지방공업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어촌문화주택지구



공장들과 희한한 농촌살림집들...

실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강력제일주의를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시고 끊임없이 펼치신 웅대한 설계도들은 그대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솟구치며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전변의 화폭이 되었다.

우리의 군력이 비상이 강화된 오늘의 현실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도, 하늘이 준 기적도 아니다.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헤쳐가신 군력강화의 천만리길이 낳은 필연적산물이다.

우리는 강해야 하고 우선 강해지고보야 한다는 신조를 지니시고 국방공업혁명의 길을 굴함없이 헤쳐오신 그이이시다.

2022년 12월 우리 군수로동계급이 600mm초대형방사포를 우리당 전원회의에 드리는 뜻깊은 증정식에서 그이께서는 정말 온몸에 힘이 난다



사회주의분명을 누려가고있다.



고, 비단 절로 솟는 그 힘이 저 무기의 가치와 위력을 알기때문만은 아닐것이며 그렇게도 모진 투쟁과 고난속에서도 우리 혁명을 위해 일심전력 다해주는 로동계급의 애국충심이 숨배여있어서 그리고 세상에 없는 주체무기를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이 뚫어넘쳐서일것이라고 하시였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이 떠올린 세상에 없는 주체무기!

그 주체무기들은 하나하나가 자주의 산아, 자립의 결정체, 자위의 보검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을 초강력적이고 절대적인 힘의 실체로, 정의와 평화수호의 보검으로 그 위력을 끊임없이, 멈춤없이 계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려는 당과 정부의 불변한 전략적로선과 방침에 의하여 나라의 자위적핵억제력은 비상이 증대되고있다.

자위가 있어야 자주도 자립도 있다는 진리를 피어린 승리로써 새기며 우리 공화국의 정의로운 힘의 력사가 이 땅위에 도도히 굽이쳐흐르고 있다.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불변의 지침으로 틀어쥐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문명부흥의 원대한 리상과 목표를 앞당겨 실현해가는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은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를 기점으로 보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으며 이 땅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자랑스런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고있다.

참으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불변의 로선이다.

글 김지성, 사진 조선중앙통신

지난 6월 신형다목적구축함 《최현》호 취역식이 남포항에서 진행되였다.



공화국의 불변진로

우리 공화국이 창건의 첫걸음을 뗀 때로부터 78번째의 년륜을 새기고있다.

국가의 번영과 진보를 이룩해나가는데서 발전관을 바로 세우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발전관에 따라 그 종착점은 자립과 예측, 강국과 망국이라는 심각하고도 첨예한 량국단에 이르게 되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적발전방식으로 단 한치의 탈선도 없이 언제나 곧바로 걸어왔다.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국가정치철학으로 내세우고 철저히 관철하여온 바로 여기에 우리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행로가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 자립, 자위의 초석우에 우리 공화국의 첫 실체를 일떠세워 주시였다.

해방후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민주의 새 나라를 일떠세우자는 그이의 건국사상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령역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왔으며 해방후 불과 3년만에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건당, 건군, 건국위업을 훌륭히 완수할수 있게 하였다.

자립이나 경제적예속이나 하는 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되던 1950년대중엽에도 그이께서는 시종일관 자주적대를 굽히지 않으시고 독창적인 자립경제건설로선과 경제국방병진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오시였다. 공화국이 단 14년만에 공업화를 실현하고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할수 있는것도 그이의 자주적인 혁명로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1990년대 제국주의연합세력이 우리의 《로선변화》와 《체제붕괴》에 대하여 떠들어댔 때에도 공화국은 자기의 로선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국가와 인민의 자주적존엄과 리익, 후손만대의 행복은 곧 강력한 힘에 의하여 담보된다는것을 불변의 지론으로 내세우시며 강력한 군력강화로 우리 국가의 자주적발전을 굳건히 지켜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그후 새 세기의 진군길에서 더욱 뚜렷이 확증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을 불변의 정치철학으로 틀어쥐시고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돏경축 열병식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다는데 대하여 선언하시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자주의 혁명로선과 자력갱생의 전략을 틀어쥐고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것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정치로선으로 재규정하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공화국은 가증되는 온갖 도전과 장애를 물리치며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구축하였으며 거창한 대건설사업들도 통이 크게 벌리였다.

오늘 공화국은 사회주의전면적발전,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펼쳐가고있다.

이 땅의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서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은 자주로 존엄높고 자립으로 번영하며 자위로 굳건한 우리 공화국의 잠재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하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간고함을 무릅쓰고 철저히 자력에 의거하는 원칙과 문제처리방식에 일관하였기에 우리는 의존심이 아닌 자신심으로 자기의 성스러운 투쟁에 더욱 성실할수 있었고 그 어떤 《확약》이나 《경제적지원》과는 대비할수 없는 거대한 결실을 전취할수 있었다고 하시였다.

참으로 복잡다단한 오늘의 세계사와 더불어 공화국의 근 80년의 력사는 자주, 자립, 자위의 길이야말로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것을 진리로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글 강소현

자주, 자존의 원칙

자주, 자존의 원칙은 정치와 경제, 국방을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자주적으로 개척하고 자력으로 국가부흥발전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담보할데 대한 혁명적원칙이다.

자주, 자존의 원칙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자주, 자존의 원칙은 무엇보다먼저 사상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원칙이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과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는것이다.

사상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전체 인민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되어 혁명위업을 새로운 양양으로 계속 고조시킬수 있으며 온갖 지배주의세력의 침략과 간섭을 배격하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대업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움으로써만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갈수 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

하여서는 전체 인민을 자주적인 혁명사상, 자주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자체의 역량강화를 저애하고 국가의 발전잠재를 총발동하는데 장애로 되는 일체 행위와 요소들을 철저히 제압극복하여야 한다.

자주, 자존의 원칙은 다음으로 정치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원칙이다.

정치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자기 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한 정치를 실시한다는것이다.

정치적자주성은 나라와 인민의 생명이고 존엄이며 주권국가의 상징이다. 정치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야 정치적독립을 유지하고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국가의 발전과 번영도 이룩해나갈수 있다.

정치에서 자주적대를 세우자면 자기식대로 살아가고 자기식대로 발전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과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자주, 자존의 원칙은 다음으로 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이룩할데 대한 원칙이다.

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이룩한다는것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이다.

자립경제는 자주, 자존의 물질적담보이다. 국가경제의 자립적발전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전반적국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제공할수 있다. 자주정치를 실시하고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자고 하여도 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

국가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다그쳐나가자면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경제건설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동력과 설비들을 자체로 충분히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고 생산능력을 부단히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경제전반을 현대화, 정보화하여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성시킬수 있는 발전토대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자주, 자존의 원칙은 다음으로 국방분야에서 자위를 실현할데 대한 원칙이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한다는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인민의 나라

우리 나라가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자기의 국호에 아로새긴 때로부터 7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 나날 공화국은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꽃피나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는 품으로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자리잡았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 바로 이것이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빛나게 구현된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다.

돌이켜보면 나라를 빼앗긴 탓에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며 지지리 놀리우고 짓밟혀온 우리 인민이었다.

령토도 자원도 국권도, 지어는 자기의 성과 이름까지도 모두 일제에게 빼앗겼던 인민에게 해방의 새봄을 안겨주시고 이 땅위에 인민이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그이께서는 1945년 10월 조국개선연설에서 새 조선에 세워야 할 정권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고 하시

면서 이러한 정권은 바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시였다.

강산에 메아리친 그이의 연설은 새 조선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등대였다.

그이께서 펼치신 인민정권건설의 구상에 따라 이 땅은 새 생활창조의 열기로 끓어번지였고 오랜 세월 무지와 몽매속에서 허덕이던 인민이 난생처음 땅의 주인, 공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세기적변혁이 일어났다.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우리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자주적인민으로 되었음을 알리는 획기적사변이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남들이 보란듯이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나라를 더욱 빛내여주시였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고 한다고, 부강조국

보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 시말하여 그것은 매개 나라와 인민이 자기를 보위할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하며 국방건설과 국가활동에서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이다.

국가방위력은 국가존립의 초석이며 발전의 담보이다.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생존수단으로 삼고있는 제국주의가 존재하는한 전쟁의 위험은 종식될수 없으며 국가발전에 유리한 평화적환경은 그 누가 선사해주는것이 아니고 그 무엇을 팔아 살수 있는것도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 누구도 범접 못하게 자기의 힘이 강할 때에만 굳건히 지킬수 있다.

강력한 국가방위력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혁명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하고 국방공업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온 사회에 군사중시, 국방중시기풍을 확립하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한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유영

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것, 이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이고 보람이라고 하시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한평생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사시였다.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것이 그이의 애국의 신조였고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그이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였다.

그이께서는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 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이 나라의 첫 새벽문을 여시고 비내리고 눈오는 험한 길을 헤치시였다. 나라가 시련을 겪던 고난의 시기에도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씨앗들과 사회주의재부들을 마련해주시였으며 인민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도록 하시였다.

인민의 나라, 오늘 이 부름은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우는데서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여 더욱 찬연히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절절히 강조하시였다.

이렇듯 숭고한 뜻을 지니시였기에 그이께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사회주의건설에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로 내세우시였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당과 정부의 모든 정책작성과 집행에서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사회의 모든 재부를 철두철미 인민의 복리증진에 돌리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내리는 비도 자옥한 흙먼지도 아랑곳없이 험한 건설장들을 찾으시여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워주시였으며 삼라만상이 깊이 잠든 밤 인민들이 리용할 지하전동차와 새형의 무궤도전차의 시운전도 지도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온 나라 인민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해주시려 아직은 모든것이 풍족하지 못해도 인민의 새 보금자리건설과 지방발전사업을 정책화하도록 하시고 인민에게 하나를 안겨주시면 열, 백을 더 안겨주고싶으신 심정을 담아 선진적인 보건시설, 종합봉사시설, 량곡관리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일떠세우도록 해주시였다.

진정 인민, 이 두 글자를 마음속에 꼭 채우시고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였기에 우리 인민의 존엄과 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으며 공화국은 위대한 인민의 나라로 그 이름 만방에 떨치고있는것이다.

글 엄향심

정치용어해설

인민적품성

인민적품성은 인민을 귀중히 여기고 무한히 사랑하며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숭고한 정신도덕적품성이다.

일군들이 인민적품성을 지녀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할수 있으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양시켜 혁명사업을 충실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인민적품성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어머니다운 품성과 풍부한 인간성이다.

또한 겸손하고 소박하며 청렴결백하게 생활하는 품성이며 높은 문화성이다.

* * *



수 기

애국자라고 불러주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일인 9월 9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나의 가슴은 못잇을 한해 전 그날로 달려가곤 합니다.

지난해 공화국창건 77돐 경축행사에 초대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중에는 나도 있었습니다.

9월 9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7돐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에 참가한것만도 영광스러운데 이날 나는 그이를 모시고 기념촬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하셔야 할 일들이 많으셨지만 조국을 위해 성실한 근로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온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게 되신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기념촬영장에 나오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제일먼저 논판양어를 잘한 녀성 일군의 손을 잡아주시였고 청진조선소의 평범한 용접공의 등도 두드려주시며 수고했다고 거듭 치하해주시였습니다.

맨 앞줄에서 그이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르던 나도 북받치는 감격을 누를길 없어 목청껏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이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부흥과 강대함은 진함없는 열정과 피타는 노력으로 국가의 근간을 억척같이 다지고 약동하는 조국에 기세찬 숨결을 더해준 애국적인민의 열화같은 성심과 비상한 실천의 정확이고 귀결이라고 하시면서 언제나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며 국익을 첫자리에 놓고 투신하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 열렬한 애국자들이라는 값높은 믿음을 안겨주시였습니다.

애국자라는 부름앞에 절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평범한 로동자출신의 과학자인 내가 과학연구의 먼길을 단 한번의 탈선도 없이 걸어오며 우리 나라 조명분야에서 처음으로 극집초형레드투광등을 비롯한 발명들을 할수 있었던은 그이께서 우리 과학자들을 굳게 믿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아버지의 다심한 정으로 보살펴주시였기때문입니다.

평범한 로동자를 공부시켜주고 어엿한 과학자로 키워준 나라의 은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열의가 끊임없는 탐구의 세계로 이끌어 나는 근 60개에 달하는 발명을 할수 있었고 박사로, 최우수발명가로, 위 포국가발명가상수상자로, 우리 나라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상인 2.16 과학기술상수상자로까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이께서는 나를, 아니 우리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애국자라고 불러주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일터마다에서 애국의 열정과 성실한 노력을 다 바쳐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몸가짜이 불러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그이이시였습니다.

때로는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또 언제인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는 만수대언덕에서 뜻깊은 화폭을 남기시며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영광의 단상에 높이 올려세워주시였습니다.

향유의 권리앞에 공민적의무를 먼저 놓고 곳은일, 마른일 가림없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진실한 그 마음들을 조국의 전진을 떠미는 크나큰 힘으로, 천만금보다 더 귀중한 국가의 제일재부로 여기시는 그이의 크나큰 믿음속에 이 땅에서는 평범한 사람들도 애국적인 근로자라는 부름과 더불어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는것입니다.

하기에 나는 진정한 애국자는 수많은 애국자들을 안아 키우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애국자라는 부름앞에 떳떳하게 과학탐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국가과학원 동력기계연구소 실장 석영범



아이들을 위해 바치신 시간

교육절이 다가올수록 나는 아이들의 행복스러운 모습에서 제일 큰 기쁨을 찾으시며 그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된다.

그럴수록 나는 초급중학교시절 평양시묘향산 등산소년단야영소에서 아버지원수님을 몸가짜이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던 행복한 그 순간이 되새겨져 마음이 절로 뜨거워진다.

나에게 영원히 잊을수 없는 추억으로 깊이 간직된 그날은 2013년 5월 19일이였다.

그날 우리 야영생들은 만폭동의 등산로정을 편담한데 이어 묘향산력사박물관에 대한 참관을 하였다. 선조들이 지녔던 뛰어난 건축술을 보여주는 보현사와 애국심이 높았던 서산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야영생들이 즐거운 참관의 로정을 이어가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차의 경적소리가 울리는것과 함께 여러대의 빠스가 우리들에게로 다가와 멈춰서는것이였다. 그리고는 영문을 몰라하는 우리를 태우고 다급히 달리는것이였다.

일군이 재촉하여 차에 오른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얼마나 크나큰 행복이 기다리고있는지 미처 몰랐다. 야영소에 도착하여서야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었다.

아니 글썽 꿈결에도 뵈고싶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야영생들을 기다리고계실줄을 어찌 알았으랴.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날 야영소를 찾으시여 전국의 모든 소년단야영소들을 훌륭하게 꾸려주실 구상을 펼쳐주시던 아버지원수님께서 문득 일군들에게 지금 야영생들이 모두 어디에 갇는지 한명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한 일군이 야영생들이 등산하러 갔는데 17시 경에야 내려오게 되어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빨리 가서 야영생들을 다 데려와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여기까지 왔다가

야영생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몹시 섭섭해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는것이다.

이렇게 되여 우리 야영생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마련되였다.

우리 야영생들은 한달음에 달려와 그이의 품에 와락 안기였다.

그이께서는 꿈만 같은 행복에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쏟고있는 우리모두를 한품에 안으시고 울지 말고 찍어야 사진이 잘된다고, 어서 눈물을 그치고 사진을 찍자고 달래시며 야영생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원래 이날 아버지원수님께서 야영소의 실태를 료해하여보고 전국의 야영소들을 모두 개건 보수하기 위한 안을 세우시려고 이곳을 찾으신것으로 하여 그이께서 야영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어 주실줄을 누구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지만 아이들을 것처럼 사랑하시는분이여서,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계시는분이여서 우리 야영생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어주지 않고서는 쉬이 발걸음을 뻗수 없으시였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가족사진을 찍는것처럼 단란한 분위기속에서 우리 야영생들은 아버지원수님의 두리에 격식없이 모여앉아 기념촬영을 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나라의 천사만사를 돌보시는 그이께 있어서 한초한초의 시간은 얼마나 귀중한것인가.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바치시는 시간 그 자체를 자신의 무한한 기쁨과 락으로 여기시는분이기에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이처럼 우리들을 위해 아낌없이 바치시였던것이다.

저는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후대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교육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겠다.

평양시 동대원구역 대신소학교 교원 땡미래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던 날에

비행기에 실려온 벼모

1961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함경북도 경성군의 어느한 농장을 찾으시였다.

해발 2 000여m에 달하는 판모봉밑에 자리잡은 이 고장에서는 언제나 겨울이 길고 농사짓는 기간이 짧은것으로 하여 밭곡식만 심어왔다.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고장 사람들의 소원을 헤아리시고 벼농사를 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시고 이렇게 현지에 나오신것이였다.

농장의 벼모들을 살펴보시던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모가 왜 이렇게 안되였는가고 조용히 물으시였다.

열었던 땅이 다른데보다 늦게 녹아서 마지막에 모를 내다보니 이렇게 되였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모를 내는 기일이 늦었는데 오늘중으로 함경남도에 전보를 쳐서 비행기로 모를 실어다가 1정보가량 시험하는것이 좋겠다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서해안지방에서 경험있는 일군들을 이 농장을 비롯한 동해안북부지대의 뒤떨어진 농장들에 보내어 도와주도록 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천리도 넘는 함경남도에서 벼모를 실은 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되였으며 그후 이 고장 사람들은 오랜 세월 념원하던 벼농사에서 드디어 성공하게 되였다.

찬바람부는 일요일에도

2011년 12월 4일은 일요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수도 평양의 모란봉기슭에 자리잡고있는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먼저 유희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관리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유희장관리운영에서 중요한것은 유희 오락시설들에 대한 설비점검과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는것이라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

고 그 운영을 부단히 개선강화하여 인민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으며 유희장구내에 전개된 봉사망들에 대한 운영관리사업에 대하여서도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유희장의 종업원들이 찬바람부는 류달리 추운 날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안타까운 심정을 아뢰이자 그이께서는 웃으시면서 이런 날에 자신께서 와야 인민들이 좋은 날에 찾아온다고 하시였다.

오늘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서는 인민들의 행복에 넘친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에서

2021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시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시였다.

이날 포태동에 들리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몸소 부감터에 오르시여 삼지연시 포태동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바라보시면서 멋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이전에 있던 살림집들은 다 허물였는가고 물으시였다.

100% 허물고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에 주민들을 다 입사시켰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삼지연시주민들이 이번에 천지개벽이라는 말의 뜻을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좋아한다는데 그것이 바로 삼지연시꾸리기에 대한 총평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이 좋아하면 합격이고 싫어하면 불합격이라고, 세상을 이렇게 천지개벽하는것이 혁명이라고 하시면서 낮과 밤을 이어나가며 투쟁하는 보람, 혁명하는 보람이 바로 이런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인민들이 좋아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정말 만족하다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에서 제일 큰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을 숭엄히 우러르며 일군들은 인민의 참된 총복으로 살며 일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 * *

활성탄공예 《국색천향》

활성탄공예 《국색천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13년 7월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항일혁명투쟁연고자 **김순옥**가족이 삼가 드린 선물이다.

활성탄공예는 숯을 가루내어 다른 점결제와 혼합하여 꽃송이들을 예술적으로 창조형상한 다음 채색함으로써 선물의 아름다움을 세련시키고 품위를 더욱 높였다.

이 활성탄공예를 방안에 놓아두면 공기를 정화시킨다고 한다.

선물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그이의 령도밑에 우리 조국에서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있다.



쏘베트나, 인민혁명정부냐?

(전호에서 계속)

구쏘베트선거에 참가했던 가야허의 로인들은 쏘베트를 속새포와 혼돈하고있었다.

《쏘베트가 나온다 하기에 왜놈들을 많이 잡을수 있는 속새포가 나오는가부다 하고 책상만 쳐다보았더니 웬걸 속새포는 안나오고 붉은기가 나옴디다그려.》

그 로인들의 말이였다.

왕청2구쏘베트창립행사에 참가한 마촌사람들 가운데는 쏘베트를 쇠버치로 해석하는 유권자도 있었다. 어떤 고장사람들은 쏘베트선거에 참가하러 가는 유권자들에게 《쏘베트가 어떻게 생긴겐지 잘 보고 오게. 큰겐지 작은겐지.》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하며 또 어떤 고장사람들은 《쏘베트란 어른이 온다는데 대접할것이 없어 야단났다.》고 하면서 광주리를 들고 나몰캐려 떠났다고도 한다.

인민들이 이처럼 쏘베트에 대하여 제나름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만사람의 웃음을 자아내는 희극적인 주석을 가하게 된것은 무식이 빚어낸 엉당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군중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선전사업을 잘하지 못하였기때문이었다. 그 당시의 해설제강이라는것은 대체로 제목부터가 대중들이 잘 알아들을수 없는 외래어투성이로서 《쏘베트란 무엇인가?》, 《폴호즈란 무엇인가?》, 《뽀무나란 무엇인가?》하는 따위의것들이였는데 쏘베트의 개념에 대해서는 선전원들자신도 잘 모르고있었다.

좌경의 독소에 중독된 급진분자들은 이처럼 인민이 잘 알지도 못하는 쏘베트를 도처에 세워 놓고 로동자와 빈고농의 독재를 부르짖으며 혁명이 다된것처럼 허장성세하였다.

나는 왕청동무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동장영을 정권형태문제에 대한 론쟁으로 끌어들이었다.

《간도일각에서 혁명정권이 태어나 온 세상에

자기 존재를 선포한것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동장영동지, 나는 이 쏘베트로 선포문에 우리의 통일전선로선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대하여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동장영은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통일전선로선이 침해를 당하다니 그건 무얼 념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명월구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우리는 우리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반일애국 세력을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울데 대한 로선을 내세우고 그 로선을 관철하기 위해 몇년동안 국내와 만주지방에서 피어린 투쟁을 꾸준히 벌려왔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많은 군중을 묶어세웠습니다. 그 군중들속에는 애국적인 종교인도 있고 상공인도 있고 하급관리들도 있고 지어는 지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쏘베트의 시책은 그들을 일률적으로 배척해버렸습니다. 어제까지 혁명을 지지하거나 동정하던 그들이 오늘은 혁명을 외면하거나 반대하는 립장에 서고있습니다. 조중인민들사이의 관계도 다시금 악화되었습니다.》

동장영은 웃으면서 내 팔목을 가볍게 두드리었다.

《그건 있을수 있는 일이고 또 본질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것은 쏘베트정권이 인민들이 바라던것을 죄다 해결해주었다는데 있습니다. 혁명도 승승장구하고있습니다. 로동자, 농민들을 위시한 절대다수의 군중은 쏘베트정권을 따르고있습니다. 무엇을 겁낼게 있습니까. 로동자와 농민만 있으면 어떤 혁명이든지 다할수 있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소수의 손실은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요?》

《손실이 있을수 있다는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취할수 있는 사람들이야 왜 밀어던지겠습니까. 우리의 총적인 전략은 적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절대다수의 대중은 모두 쟁취하자

는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해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반일부대와 사업도 하였습니다. 5.30폭동을 계기로 저락되였던 공산주의자들의 체면도 가까스로 회복하고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조성된 불화도 천신만고하여 제거해놓았는데 그렇게 공을 들여 쌓은 탑이 하루아침사이에 무너질수 있는 위기가 또 조성되었습니다.》

《김일성동지, 너무 비관적으로 문제를 고찰하는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나는 원래 만사를 략관적으로 대하는데 버릇된 사람입니다. 혁명은 물론 앞으로 승승장구해갈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장영동지, 동만에 조성된 좌경적시책의 후과에 대해서는 심심히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동만당은 이 문제에 대해 응당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책을 검토하라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책을 검토하고 그 시책을 낱고있는 정권형태에 대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동장영은 그 말을 듣자 미간을 모으고 못마땅해하는듯한 표정을 지었다.

《김일성동지, 쏘베트정부의 시책에는 물론 오류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형태는 불가침입니다. 쏘베트를 건설하는것은 중앙의 로선입니다.》

론쟁은 계속되었다.

동장영은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쏘베트를 절대화하였다. 그는 성미가 온화하고 인정도 있는 사람이였으나 벽창호였다. 지식이 풍부한 반면에 사고와 실천에서는 교조를 많이 범하였다.

그후 나는 다시 동장영과 함께 정권문제에 대한 론의를 하였다. 그날의 론쟁에서 중점적으로 토의된것은 쏘베트를 유지하는가 포기하는가, 포기한다면 새로운 정권형태로 어떤것을 선택하는가 하는것이였다.

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해야

할 동만지방의 유격구들에서 쏘베트가 실정에 맞지 않는 정권형태라는것이 생활적으로 증시된 조건에서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결단을 내려 정권형태를 바꾸고 인민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 혼란상태에 빠진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고 동장영을 설복하였다.

《쏘베트가 동만의 실정에 맞지 않고 또 쏘베트의 일부 시책이 혁명에 손실을 주었다는것은 나도 인정합니다. 전번에 김일성동지는 쏘베트로 선포문에 통일전선로선이 침해를 당한다고 걱정하였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였는지 이제는 리해가 됩니다. 최근 몇달동안 동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태는 나로 하여금 김일성동지의 그 경고를 심사숙고해보지 않을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쏘베트를 대신할만한 정권형태를 확정짓지 못하였습니다.》

특위서기의 견해에서 생긴 변화는 나를 기쁘게 해주었다. 그날의 동장영은 군중의 기세가 높은 혁명의 고조기에는 쏘베트만이 공산주의자들의 유일한 정권형태가 될수 있다고 주장하던 왕년의 그 고집스런 특위서기가 아니였다.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로동계급의 정권형태는 썸문과 쏘베트라는것밖에 없지 않습니다.》

동장영은 여기까지 말하고나서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 눈길은 마치 당신이 나를 납득시킬만한 형태를 찾아낸다면 나도 구태여 반대하지 않겠다는 암시가 담겨있는것같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실정에 맞는 형태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봅시다.》

《우리가 만든다구요? 슬프게도 나는 그럴만한 천재가 못됩니다. 맑스주의고전에도 없는것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다음호에 계속)

개신청년공원 유치장에서의 하루



강소호를 단장으로 하는 제일조선고급학교학생조국방문단이 개신청년공원유치장을 찾았다.

여러가지 유희기구들이 다 그러했지만 급강하탑은 학생들의 발걸음을 더욱 끌어당기었다. 한두번 타보는것으로 성차지 않아 세번네번 타는 남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땅우에서 구경만 해도 자기들의 몸이 천길나락으로 떨어지는것만 같아 두손을 꼭 잡는 녀학생들도 있었다.

학생들은 배그네와 전기자동차, 궤도회전반, 회전그네를 비롯한 여러 유희기구를 타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었다.

글 변진혁, 사진 김영호



애국의 감정을 승화시켜준 나날이었다



도표조선중고급학교
조청지도원 김화영

나는 2018년에 이어 두번째로 조국을 방문하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8년 사이에 조국은 정말이지 몰라보게 변모되었다. 평양에만도 웅장하고 멋있는 건축물들이 수없이 일떠섰다. 아마 이런걸 두고 천지개벽이라고 하는것 같다.

희열에 넘친 조국인민들의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다. 우리가 만나본 사람들은 윤택한 생활을 앞당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었으며 창조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고 있었다.

나만이 아닌 우리 학생들도 큰 감동을 받았다. 눈에 띄우는것은

학생들의 의식에서의 변화이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조국에 대해 학습이나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알고있었다. 학생들은 이번 방문 과정에 여러곳을 돌아보고 현실을 목격하면서 이름할수 없는 충격과 감격을 받아안았으며 조국에 대해 더 많은것을 깊이있게 알게 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하루참관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면 저저마다 자기의 소감을 발표하였고 총련의대, 애국의 대를 이어나갈 결의를 다지곤 하였다.

정말이지 조국방문기간은 우리 모두에게 애국의 감정을 승화시켜준 잊을수 없는 나날로 되었다.

참된 조선청년으로 준비해가겠다

내가 조국방문기간 제일 큰 감동을 받은 곳은 만경대혁명학원이다. 나는 학원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절대로 울지 않겠다고 마음다지였다. 그것은 부모잃은 원아들이 그 누구보다 아픈 마음을 안고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원아들의 공연을 보면서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없었다. 부모들의 뜻을 이어 나라의 기둥이 되고 조국을 위해서라면 한몸 바쳐갈 그들의 마음과 결의들이 담긴 공연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것이다.

그날밤 나는 잠들수 없었다. 조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조청일군이 되어 지역동포사회를 지켜갈 생각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원아들의 공연을 보고나서 나의 생각이 협소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왜 나는 원아들처럼 조국과 자신을 결부시켜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가, 과연 내가 총련조직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자신을 바쳐갈 결심이 서있는가고 자문해보았다.

만경대혁명학원을 떠나기 전에 한 원아가 나에게 이역땅에서도 굴하지 않는 굳센 마음을 지니고 조선사람으로 빛나게 살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원아가 한 당부를 나는 잊을것같지 못하다.

나는 앞으로 이 당부를 명심하고 총련을 지키고 조청운동을 떠메고나갈 참된 조선청년으로 준비해나가겠다.



도표조선중고급학교
학생 리랑기

중국 베이징시 서성구 신외거리 28호원 김영미에게

나날이 변모된다

보고싶은 내 딸 영미야.

그새 잘 있었느냐?

우리 온 집안은 네가 조국방문의 나날에 남긴 사진들을 보며 웃고 떠들면서 이 편지를 쓴다.

너를 취재한 《금수강산》잡지 기자선생님들이 여러장의 사진들을 가지고왔단다.

기자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네가 성격이 좋고 노래도 잘 부르더라고 하면서 묘향산에서 보낸 나날들을 이야기해주더구나.

네 언니와 태원이 아버지도 사진들을 이리 보고 저리 보며 얼굴에 웃음을 띠우는가 하면 태원인 이모가 보고싶다고 투정질을 한다.

정말 우리도 네가 보고싶다.

네 어머니는 너의 모습이 꿈에 자주 보인다고 말한다.

그새 일은 다 잘되고있니.

장난이 세찬 손의가 많이 컸겠구나.

영미야, 우리 온 집안은 다 잘 있다.

난 아침이면 대동강구역도로시설관리소 지배인을 할 때처럼 대동강유보도를 따라 이전의 일터를 돌아본단다. 네 엄마는 이제는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침일과를 좀 바꾸라고 이야기하지만 습관처럼 되어버렸다. 대동강유보도도 거닐고 담당했던 관내를 돌아볼수록 생각이 많아진다.

몇해어간에 조국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우리 집가까이에 평양종합병원도 솟아났다.

정말 멋있다. 너도 방문기간에 가봐서 알겠지만 난 병원에 갈 때마다 눈물이 솟구친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평양에서 명당자리가 아니냐. 그 아끼고아끼던 부지에 나라에서는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병원을 일떠세웠다.

설비들이 최신식이고 의사들의 정성도 또 얼마나 지극한지 병이 절로 나을것만 같다.

조국에 온 기회에 너도 한번 평양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거라.

며칠전에는 태원을 데리고 네 엄마랑, 언니랑 가서 치료를 받았다.

참, 늙으면 말이 많아진단다더니 내 소리만 했구나. 네 엄마는 건강해서 잘 있다. 여전히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찾아하고 손주의 뒤바라지도 잘해준단다.

태원인 소학교적으로 공부를 잘하고있다. 얼마전에 학교에서 최우등생경연을 했는데 또 1등을 했다.

네 언니 김치를 담글 때도 그래, 토장국을 만들 때도 영미가 좋아하는 김치, 토장국이 라고 외우곤 한단다.

영미야, 네 비록 멀리 있어도 난 언제 한번 우리 생활속에서 떨어져본적이 없다.

우리는 이악한 네가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맡고있는 일을 잘하고있으리라 믿는다.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 아니 온 가족이 지켜본다는것을 명심하고 나라의 부강번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바란다.

그리고 항상 건강에 주의를 돌리거라.

그럼 내 딸아, 잘 있거라.

손의에게도 이 할아버지의 인사를 전해다오.

평양시 대동강구역 동문1동 63인민반 김동수아버지로부터



바치는 마음



리성림

《그새 건강이 어떻습니까? 몸상태랑, 기분이랑 어떠한지 해서 전화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분도 좋고 몸도 그전보다 편해졌습니다.》

평양산원 부인종양과 의사 리성림은 정성을 다해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이 퇴원한 후에도 자주 전화로 건강상태를 알아보고있다.

이제는 이것이 어길수 없는 그의 일과로 되었다.

약을 제시간에 꼭꼭 하라고 하면서 언제나 친절하게 전화를 걸어오는 그를 환자들은 《우리 의사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르고있다.

17년전 의료일군으로 첫발자국을 내짚은 때로부터 오늘까지 그가 사업에서 철칙으로 삼은것이 있으니 그것은 환자들을 결코 남이 아니라 자

기의 친혈육처럼 여기는것이다.

이것은 오랜 보건의일군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에 기인된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년대에 조국의 품에 안긴 그의 아버지는 일본땅에서는 상상할수 없었던 생활을 체험하게 되었다. 조국의 어디 가나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는것이였다. 《나》라는 개념에만 포로되어있던 성림의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차츰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그는 《나》라는 말대신에 《우리》라는 말에 익숙되었다. 무상으로 배정해준 집의 부엌세간살이까지도 하나하나 알아보고 대책해주던 정권기관 일군들이며 낮도 채 익히지 못하였는데 부식물이 떨어질세라 마련해주던 이웃들...

사랑과정이 공기처럼 흐르는 조국에서 성림의 아버지는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성림아, 너도 이 아버지처럼 소원대로 의사가 되었구나. 내가 늘 말했지만 사람은 사랑을 받기만 해서는 안된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너는 여기서 나서자랐으니 다는 모를거다. 환자들을 절대로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환자들을 제 살점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거라. 사랑을 주면 줄수록 기쁨은 배로 커진단다.》

성림은 한생의 지론과도 같은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종양환자들을 완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약물과 수술을 병합한 종양적출술을 확립하는데서 주도적역할을 하였으며 부인종양치료에서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인것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번은 황해북도 신계군의 한 여성교육자가 그

를 찾아왔다. 그 여성은 도산원에서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혹시나 하는 한가닥 희망을 안고 평양산원을 찾아왔다고 속을 터놓았다.

성림은 그 환자의 말을 듣고 검진을 다시 해보았다. 결과는 같은것으로 하여 여성은 맥을 놓고 주저앉고말았다.

그는 여성에게 신심을 잃지 말라고, 병치료는 약절반 마음절반이라는 말도 있는데 절대로 맥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힘을 주었다.

이것은 결코 환자를 위안하고자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을 다잡는 말이기도 하였다.

그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치료를 진행하였다. 쯔미간에도 쉬지 않고 과학적인 치료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자료들을 보았고 퇴근도 미루어가며 선진적인 수술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환자의 입맛을 돌려세우기 위해 가정에서 준비한 영양음식도 가져다주었다.

그만이 아니였다. 온 과의 의료일군들이 담당 의사가 되고 담당간호원이 되어 진정을 바쳤다.

그의 높은 의술과 정성에 의해 여성교육자는 마침내 교단에 다시 서게 되었다. 그는 환자가



환자치료에 정성을 다한다.

퇴원한 후에도 건강상태에 대해 자주 알아보며 혈육의 정을 기울이였다.

여성교육자만이 아닌 많은 여성들이 그의 노력에 의해 생의 희열을 되찾았다.

산원으로는 그의 정성을 소개하는 수많은 감사편지들이 오고있다.

자신을 바치는데서 행복을 찾는 리성림의사는 오늘도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있다.

글 김세현, 사진 김강무



가을철감기를 예방하려면

가을철에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하기때문에 감기에 쉽게 걸릴수 있다.

가을철에 감기를 예방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날씨에 맞게 옷을 착용하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무더운 여름철이 지난 후 가을철이 오면 날씨가 몹

시 추워지기 전까지는 덧옷을 입기 싫어한다.

갑자기 추워졌을 때 리용할수 있는 덧옷이나 목도리를 예비로 가지고다니는것이 좋다.

-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비누로 손을 자주 씻으면 세균들의 번식을 방지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 잠자리를 잘 관리하는것이다. 침대보를 제때에 교체하여야 한다. 그래야 침대보에 생길수 있는 유해세균에 의한 감염을 미리막을 수 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방안을 잘 통풍시켜야 한다.

* * *



고향소식

압록강기슭에 솟아난 대농장도시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가는 조국의 모습을 해외동포들에게 전하기 위해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의 발걸음은 압록강기슭에 새로 솟아난 대농장도시인 위화도에도 향하였다.

위화도지구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자리잡고 있다.

농장도시에서 우리의 눈앞에 제일먼저 안겨든

것은 대규모온실남새생산기지인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이었다.

1 150여동의 각이한 유형의 수경 및 토양온실들과 시험재배온실들이 들어앉은 농장은 최근년간에 조선동해지구의 중평과 련포, 평양의 강동지구에 건설된 온실들을 다 합친것보다 더 큰 면적을 차지하고있었다.



농장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가 먼저 들린것은 온실농사를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꾸려진 통합조종실이었다. 일군은 우리에게 매 온실

들의 생산환경을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종합관리하고있다고 하며 그에 대해 알기 쉽게 해설해주는것이였다. 이윽고 그는 우리를 남새저장고로 이끌었다. 오이, 도마도, 고추, 진채 등 갖가지 신선한 남새작물들이 그득한 저장고의 규모에도 탄복했지만 이제 이 남새들을 신의주시대로 수송하게 된다는 종업원의 이야기에 그것을 받아안고 기뻐



할 평안북도인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듯 싶어 우리의 마음은 절로 흥그러워졌다.

우리는 남새과학연구뿐 아니라 온실남새재배와 관련한 전국적인 기술봉사도 진행하는 학술지도단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의주남새과학연구중심도 찾았다. 이곳 과학연구집단은 온실농장의 경영관리와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지능형통합생산체제와 가치있는 재자원화기술들을 도입하여 생산원가를 극력 낮추고 큰 실리를 얻고있을뿐 아니라 남새의 품질과 맛, 영양가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나가고있었다.

과학연구기지에는 수직회전식다층남새재배장치, 수직흐름식다층남새재배장치, 수평판식다층남새재배장치가 설치되어있는 반구형유리수경온실들을 비롯하여 각이한 류형의 온실들이 있었다.

양어와 남새재배를 결합한 반궁룡식2중박막수경온실과 남새와 버섯재배를 결합한 반궁룡식2중박막토양온실에 들어섰을 때 이곳 관리원들은 우리에게 온실의 수조에서는 철갑상어, 잉어, 룡정어들이 육식거리고 띄움식재배틀에서는 물고기배설물을 리용하여 부루, 영양배추를 자래우고있다고 하면서 남새와 버섯도 겹재배하고있는데 실리가 크다며 새 일터에서 일하니 절로 흥이 난다고 기쁨을 터놓았다.

우리는 농장의 다른 구획들의 온실들도 돌아보면서 온실남새생산의 과학화, 집약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농장에서 일하는 이곳 근로자들의 남다른 긍지와 보람을 엿볼수 있었다.

끝간데없이 펼쳐진 온실구역을 벗어나 우리는 시내의 중심에 자리잡고있는 문화회관에도 들리었다.

회관관장은 우리에게 화려한 무대에서의 노래와 춤을 생각도 못했던 주민들이 이제는 성악가, 연주가들이 되어 자기들이 누리는 행복한 생활을 담은 예술소품들을 준비하고있다고 하면서 위화도지구 인민들속에서 전해지는 3대기적에 대하여 들어보았는가고 묻는것이였다. 이윽고 그는 압록강기슭에 견고한 제방이 솟아 물란리가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는것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새 농장도시가 일떠서니 여기에 보금자리를 편 농장의 주민수가 날로 증가되고있다는것,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지구에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온실농장이 일떠서 위화도가 말그대로 《보물섬》으로 전변되었다는것이였다.

우리는 위화도지구에서 다자녀세대동네로 불리우는 하단2동 47인민반의 김남일가정을 비롯하여 여러 가정을 방문하는 과정에 그 말의 참의미를 깨닫게 되였다.

평안북도의 어느한 군에서 살다가 새 농장도시



가 일떠선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온 김남일은 자기 가정에 나라에서 무상으로 새집을 안겨주고 자기와 안해는 새 일터에서, 세 자식들은 새 교육조건과 환경이 마련된 학교와 유치원에서 마음껏 공부하며 생활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런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생각뿐이라고 말하는것이였다.

하단1동 14인민반에 사는 백살 난 장수자로인한 가정의 찾았을 때에도 심정은 마찬가지였다.

몇달전 나라에서 배려해준 새 살림집에서 백번째 생일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았다는 방순실 할머니는 보매 무척 정정했다. 손녀인 최은경은 우리에게 지난번 큰물이 났을 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피해지역 인민들을 평양에 불러주시여 꿈같은 나날을 보내도록 해주시고 다시는 큰물피해란 말을 모르도록 이렇게 훌륭한 새 농장도시를 일떠세우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

다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모두가 새집들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기쁨을 뭐라고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눈굽을 적시는것이였다.

우리 나라 속담에 화가 복이 되었다는 말이 있듯이 이 고장 인민들은 정말 복받은 인민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나라의 은덕으로 이곳 인민들이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었고 그 밝은 모습에서 앞으로 더욱 몰라보게 변모될 위화도의 래일을 그려보았다.

어느덧 농장도시의 거리에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불밝은 집집의 창가마다에서는 노래소리, 행복에 겨운 웃음소리들이 흘러넘치고있었다.

글 윤혁, 사진 리영철



평양빛섬유통신
케블공장에서

인재발동을 중심고리로

단위발전이 인재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면 그 인재들의 잠재력을 어떻게 발동하는가 하는것은 해당 단위 일군들의 역할에 기인된다고 할수 있다.
빛섬유통신케블을 비롯한 각종 통신케블을 생산하고있는 평양빛섬유통신케블공장의 경영활동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근 40년의 역사를 가지고있는 공장에서는 지난 시기와 마

찬가지로 인재발동을 생산장성의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인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워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재대렬에 들어서려는 지향을 가지도록 하고있다.
이를 위하여 자동화과, 기술 및 품질관리과의 기술자들을 비롯하여 공장기술력량의 중추를

이루는 인재들에 대한 평가를 우선시하고 30대의 인재들을 직장장을 비롯한 관리일군들로 등용하였다.
뿐만아니라 기능공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가해주고 내세워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장에서는 현장로동자들이 제기하는 과학기술혁신안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완성

할수 있게 기술자들이 방조를 주는 체계를 세우고 적극 생산에 도입하였다.
최근년간에 제품의 질제고와 생산장성에 필요한 많은 과학기술혁신안들이 제기되었는데 그중 파반수가 현장로동자들의것이다.
평범한 녀성로동자가 편심측정용케블절단기를 창안제작한것은 물론 로동자, 기술자들이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다용도빛섬유통신케블생산공정을 확립하여 동케블흐름선에서 빛섬유통신케블을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생산에 창안 및 도입되는 과정은 그대로 공장에 과학기술중시기풍, 인재중시기풍을 세

우는 중요한 계기로, 생산정상화의 관건적인 고리로 되었다.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수행하고있는 공장은 여러 차례 당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의 명의로 된 공동순회우승기와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글 김대철
사진 전선일

정치용어해설

과학기술중시기풍

과학기술중시기풍은 과학기술발전을 중시하고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사회적인 기풍을 말한다.
과학기술은 인간의 창조성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기 위한 인간의 활동은 과학기술에 의하여 담보된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 과학기술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강자가 되고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약자로 밀려나는것이 현시대의 중요한 특징이다.
온 사회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워야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러운것 없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다.

* * *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여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토대를 강
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
지고있는 속에 교육의 실용화, 중
합화, 현대화가 실현된 학교들중
에는 평양시 강동군 송가초급중학
교도 있다.



학교에는 4층으로 된 교사와 함
께 체육관, 운동장, 야외수영장,
교원합숙 등이 있다.

교사에는 다기능화된 교실들과
교육방법연구실, 과목학습 및 실
기실들, 여러 실험실 등이 교육학
적기준에 부합되게 꾸려져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심리적특
성에 맞는 교육방법들을 적극 활
용하여 교수와 실험실습의 효과성
을 높여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공
고히 하도록 하고있다.



IPTV봉사체계를 구축한 학교에서는 학생방송실을 리용하여 학생들의 인식교양에 의의가 있는 여러가지 편집물들을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편집물에 대한 느낀 소감을 서로 토론도 하고 발표하는 모임도 자주 조직하여 학생들의 발표능력을 높여주고있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후 수화소조, 물리소조, 화학소조, 생물소조, 미술소조, 음악소조 등에서 자기들의 희망과 재능을 꽃피우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차이를 결정적으로 줄이기 위한 국가의 정책에 의해 우리 마을에도 현대적인 학교가 일떠섰습니다. 우리는

교육사업을 부단히 개선해나감으로써 모든 학생들을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쓸모있는 역군들로 키워내겠습니다.》

이것은 최성호교장만이 아닌 이곳 학교교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학생들을 나라의 기둥감들로 훌륭히 키워내기 위해 헌신하고있는 교원들의 성실한 노력에 의하여 학교에서는 7.15최우등상수상자들과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글 윤혁
사진 황정혁



학생들의 재능의 싹을 키워주기 위한 과외소조들이 활발히 운영되고있다.



국가과학원
종이공학
연구소에서

새로운 종이생산기술을 확립한 연구집단

《종이의 리용분야가 넓어지고 각종 기능성종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있는 현실은 우리 연구사들로 하여금 국내실정에 부합되고 자체의 원료에 의거한 새로운 제지기술을 개발해낼것을 요구하였습니다.》라고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 소장인 인민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 리영일은 말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의 연구사들은 우리 식의 새로운 제지

법과 제지기술연구에 달라붙었다.

연구집단은 먼저 원료문제 해결을 주되는 목표로 설정하였다. 한것은 원료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고서는 아무리 선진적인 생산공정을 도입한다 해도 현실적의의가 없었기때문이었다.

연구사들은 우리 나라에 흔한 단풍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밤나무, 참나무 등의 가랑잎을 리용하여 팔프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지하게 진행

해나갔다.

고심어린 노력끝에 이들은 가랑잎으로 질높은 팔프를 생산할수 있는 우리 식의 열화학기체 팔프생산기술을 내놓았으며 포장종이와 나무모종이용기생산에 리용할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하였다.

과지팔프나 종이생산과정에 나오는 폐섬유팔프에 가랑잎팔프를 일정한 정도로 혼합하고 첨가제를 넣어 성형품을 생산할수 있는 이 기술은 생물분해

성이 좋아 환경을 보호하는데서 매우 효과적이였다. 특히 종이 t당 팔프량을 훨씬 절약할수 있게 한것으로 하여 이 기술은 생산자들속에서 호평을 받았다.

그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연구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새로 일떠서는 종이공장들이나 생산공정설계도 직접 말

아하면서 연구사들은 우리 식의 새로운 절약형, 집약형, 환경보호형종이생산공정을 하나 하나 확립해나갔다.

이 나날에 연구집단은 하나의 생산공정에서 필기종이와 포장종이, 인쇄용종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종이제품들을 동시에 생산할수 있는 다용도초지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어 초지기의 능력을 10배이상으로 갱신하여 현실에 도입하는 성과

를 이룩하였다.

또한 종이생산공정에서 물소비를 극력 줄이고 폐섬유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재자원화기술, 화학시약을 전혀 쓰지 않는 환경보호형팔프생산방법도 내놓았다.

투자가 적고 공정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거둬들이 높으며 환경오염이 적고 백색도가 높은 종이를 생산할수 있는 우리 식의 종이생산방법과 기술의 개발은 김화군종이공장과 그보다 생산능력이 훨씬 높은 은산종이공장에 도입되어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나라의 제지공업발전에 기여한 연구사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오늘도 이들은 종이생산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탐구를 거듭해나가고있다.

글 강소현
사진 리철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 소장
인민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 리영일(가운데)



우리 식의 종이생산방법과 기술로 생산한 사무용종이



수요가 높은 의료기구들

오래전부터 고려의 학자들은 《병은 나쁜 피가 고여서 생기므로 나쁜 피를 없애주어야 병을 고칠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를 정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내놓았다.

피를 깨끗이 정화시키는 기술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로화의 지연과 자연수명의 연장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새로운 피정화방법으로 오늘날 편광치료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편광료법은 피속의 효소들의

활성을 변화시켜 비정상적인 혈액지표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그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며 혈액의 점성을 낮추고 지방분해를 촉진하여 피를 맑게 하고 로폐물의 분해와 배설을 촉진시켜준다.

이러한 원리로 편광료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순환기질병, 뇌혈관질환치료와 동통, 염증을 해소하며 면역기능을 제고하는데서 특효가 있다.

원대무역회사 령군봉건강제 품생산소에서 여러가지 류형의

편광치료기를 우리 식으로 개발, 생산하여 내놓았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레이자치료기를 개발한 이곳 연구집단은 치료작용기전을 해명하는 과정에 레이자가 아닌 일반빛에서도 편광을 얻을수 있지 않겠는가를 모색하게 되었다. 신진과학기술훈수들을 탐독하고 여러 연구과정을 거쳐 이들은 우리 식의 새로운 편광치료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주개발자인 소장 홍경운의 견해에 의하면 근적외선편광을 리

용한 편광치료는 빛과 생명유기체와의 호상작용에 대한 과학적 고찰에 기초한 최신빛치료법의 한가지 형태로서 인체의 세포와 혈액, 장기, 면역계통의 기능을 정상회복하며 약물료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성질환들을 치료할수 있는 첨단물리치료기술로 인정되고있다고 한다.

다년간의 개발과정에 연구집단은 제품의 기술적지표들을 부단히 갱신하면서 새형의 가정용, 휴대용, 대형편광치료기를 내놓았다.

새로운 특허기술인 조각면집합반사경체계를 도입하여 제작된 치료기들은 150cm의 넓은 편광조임면적과 40mW/cm²이상의 높고 균등한 보임빛-근적외선대역의 편광에너르기밀도를 실현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더욱 높였다.

특히 휴대용편광치료기는 높은 에너르기밀도의 근적외선편광을 인체의 깊은 곳까지 침투시켜 침혈, 신경질 등 국소부위 치료와 폐와 위, 간 등 내장장기치료에 효과적이다.

편광치료기들은 현재 전국의 병원과 가정들에 적극 도입되어 은을 내고있다.

많은 사용자들속에서 편광치료기로 치료를 받은 후 불면증 증상이 없어졌으며 머리아픔, 손발저림 등이 신비하게 치료되었다. 뇌혈전으로 인한 마비와 언어장애가 풀렸다, 만성신장염과 방광염으로 애를 먹었는데 한두번의 조임으로 손쉽게 고칠수 있었다, 경추증, 혈압과동이 없어졌다 등의 긍정적인 반영들이 제기되고있다.

편광치료기는 국내특허제품으로 등록되었다.

특별한 조작이나 기술이 없이도 누구나 자체로 여러가지 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할수 있어 아주 실리적이라는것이 이곳에서 개발한 제품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가이다.

이밖에도 생산소에서는 휴대용심장혈관검사기와 휴대용자동혈압측정장치, 전위선치료기, 반도체레이자치료기 등 가정용의료기구들을 개발생산하여 인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다.

글 김성경
사진 김영호



오륜을 향해가는 소녀



그때 남보다 몸이 체소한 그가 당선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류미경감독의 눈에는 훈련장에 나선 평경이의 모습이 부모의 슬하에서 어리광을 부리는 나 어린 소녀로만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그는 활력선수단의 탄력망체조선수가 되었다.

류미경감독의 지도밑에 김평경선수는 탄력망체조기초기술을 공고히 하였으며 육체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춘일단장을 비롯한 선수단의 일군들과 선수들도 이들의 훈련열의를 북돋아주었다. 난도 높은 기술동작수행, 원만한 비행시간보장 등 훈련의 요구성은 날로 높아졌고 시간이 갈수록 김평경선수의 성장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탄력망체조기초기술을 익히기 시작한 때로부터 1년도 못되는 지난해에 김평경선수는 국내경기에서 첫 우승을 쟁취한데 이어 첫 국제경기로 되는 제7차 성인급, 청년급 아시아탄력망체조선수권대회 및 제2차 연령별 아시아탄력망체조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예선경기에서 제일먼저 출전한 김평경선수는 제시된 특수요구 4가지를 원만히 준수하면서도 10가지의 동작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전문가들과 관람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어 결승경기에서도 김평경선수는 자신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난도 높은 기술동작들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영예의 1등을 쟁취하였다.

일반적으로 체조경기에서는 0.01의 점수차이로 순위가 결정된다. 허나 김평경선수는 2위를 한 선수보다 근 10점이라는 압도적인 실력차이로 우승함으로써 평시에 련마한 실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하기에 나 어린 김평경선수의 경기모습을 본 세계체조련맹 위원장은 지금처럼 나가면 그는 앞으로 올림픽수상자가 될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하였다.

우승의 시상대에 오른 딸의 모습을 본 리인화녀성은 《동림군의 철부지어린것이 금메달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재능의 싹을 찾아 키워준 감독들에게 그리고 어린 딸자식을 국제경기무대에 내세워준 어머니조국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격정을 토로하였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아시아의 패권을 쥔 김평경선수는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질주하고있다.

글 김성영, 사진 리철



상 식

사탕을 어느때 먹으면 좋은가

목욕하기 전에 사탕을 먹으면 허탈을 방지하므로 좋다.

운동하기 전과 피곤하고 배고플 때, 어지럽고 메스꺼울 때에도 사탕을 먹으면 좋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탕을 먹지 말아야 한다. 식전에는 사탕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식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잠자기 전에 사탕을 먹으면 이발째에 세균이 번

식하므로 이발을 상하게 하며 신경성흥분을 일으켜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밥을 배불리 먹은 후에 사탕을 먹는것도 삼가해야 한다. 그것은 몸을 비대하게 할뿐만 아니라 당뇨병에 걸릴수 있기때문이다. 이발이 쏠 때와 이발질병이 있을 때에도 사탕을 먹으면 병이 더 심해질수 있다.

* * *



두번째 해수욕계절을 맞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글 김대철
사진 리광성, 라평렬, 김성철, 리철진, 리진혁

지난해 자기 모습을 드러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해수욕계절에 들어서면서 기쁨과 랑만의 파도가 더욱 물결치고 있다.

서로 먼저 바다에 뛰어들며 환호를 올리는 근로자들, 구명대에 몸을 싣고 깔깔거리며 물장구를 치는 학생소년들, 기쁨과 희열에 넘친 자기들의 모습을

저저마다 사진에 담는 사람들... 고속보트와 물스키를 타고 출렁이는 파도를 헤가르며 경쾌한 질주의 쾌감을 맛보는 모습들도 볼만하지만 모래터배구장에서의 열기띤 경기와 은빛모래불을 누비는 오토바이들의 경주는 해안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의 랑만을 더해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10여개의 수조

들과 급강하물미끄럼대, 썰매물미끄럼대, 사발형급속물미끄럼대를 비롯한形形色색의 물놀이유희기재들이 준비하게 늘어선 명사십리야외물놀이장은 그야말로 웃음바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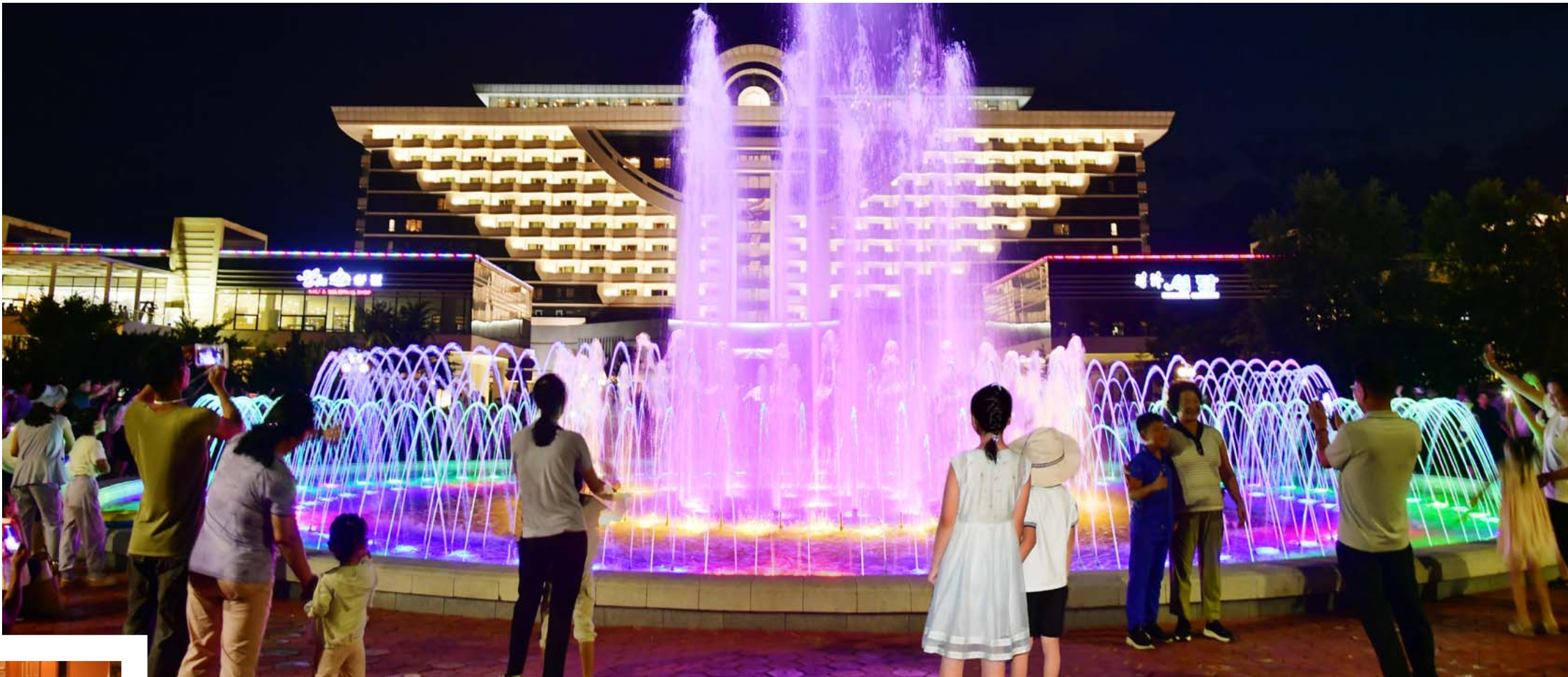


옥류관 갈마분관을 비롯하여 특색있게 꾸러진 급양봉사기지들마다에서 지방특산의 진미를 맛보는 사람들과 궤도전차, 축전지차에 올라 바다가경치를 부감하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도 기쁨이 한껏 차넘치고있다.

불야경으로 더욱 매혹적인 유
보도를 밤길도록 거닐며 희열
에 넘쳐있는 사람들, 창가마다
에 흘러넘치는 행복의 노래소
리로 잠들줄 모르는 갈마반도
의 밤은 관광지구의 유정한 정
서를 자아내고있다.

《갈마반도의 십리백사장은
희한하고 그 어디에서나 웃음
꽃 만발하는 명사십리, 인파십
리입니다. 관광기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
말 떠나고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왔다는 한 주민뿐 아니라 이
곳을 찾는 모두의 심정이었다.



지
명
유
래

명사십리

명사십리는 강원도 원산시 갈마반도의 남
동쪽 바다기슭에 정갈하게 펼쳐진 희고 깨끗
한 모래밭을 말한다.

명사십리는 처음에 《울 명》자와 《모래
사》자로 기록되어있었다.

그 뜻은 모래가 먼지나 흙이 전혀 섞여있
지 않는 깨끗한것이므로 밝으면 《백백》
또는 《빠득빠득》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마치 새울음소리와 같다는 의미에서, 그런
모래가 십리구간에 깔려있다고 해서 불리워
진 이름이었다. 명사십리의 특징은 바다물

에 씻겨 반짝거리는 희고 깨끗한 모래불우에
해당화가 피는것이다.

하어 지금은 《울 명》자가 아니라 《밝을
명》자를 써서 명사십리라고 하며 일명 《해
당화명사십리》라고도 한다.

오늘날에 와서 갈마반도의 명사십리에 현
대적인 해안관광지가 꾸려져 사람들은 이곳
을 기쁨과 랑만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르는
십리해안, 인파십리로 부르고있다.

* * *



단고기료리전문식당

수도에 단고기를 전문으로 봉사하는 식당들이 늘어나고있는 속에 지난 3월에는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조선식합각지붕을 띤 단고기료리전문식당이 일떠서 문을 열었다.

2층짜리 기본건물에 대동강기슭을 따라 뻗어간 회랑이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식사실들과 현대적인 주방설비를 비롯하여 모든 봉사조건과 환경이



원만히 갖추어진 식당에서는 단고기국밥과 부위별에 따르는 다양한 단고기료리들을 봉사하고있다.

리옥향정리는 《단고기에는 사람의 몸에 좋은 단백질과 기름질뿐 아니라 칼리움, 린, 철을 비롯한 광물질도 들어있습니다. 단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기름질은 소화가 잘되고 흡수력이 매우 높아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단고기국을 병을 앓고난 후 보양음식으로 널리 리용하여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이곳에서는 조밥과 단고기국을 봉사하고있는데 박경수주방장은 이에 대하여 조밥을 더운 단고기국에 말아먹으면 더위를 막고 기력을 돋구는데 그거그만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단고기등심찜, 단고기갈비찜, 단고기발족찜 등 여러 요리들도 사람들의 건강에 좋다고 소개



하였다.

야외회랑에 꾸러진 식사실에서는 대동강의 이채로운 풍경을 부감하며 요리도 맛볼수 있어 누구나 즐겨 찾고있다.

식당의 음식맛은 요리사들의 손끝에 달려있다고 이곳 요리사들 대부분이 고급요리사들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하루가 다르게 소문이 나 단골손님들이 나

날이 늘어나고있다.

중구역 외성동에서 살고있는 홍인철로인은 식당의 요리가 입에 꼭 맞는다고 하면서 단고기요리가 생각나면 아들, 며느리와 함께 이곳을 찾는다고 하였다.

글 김슬기
사진 김강무



천연제품으로 인기를

곤유도새기술개발소는 여성들의 피부미용에 도움을 주는 피부보호제품들과 천연건강식품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위이다.

개발소는 예로부터 우리 여성들이 기초화장품으로 널리 이용하여온 수세미오이즙을 가지고 피부미용에 효과적인 20여가지의 천연제품들을 개발하고있다.

몇년전 피부보호제개발에 달라붙은 이곳 연구집단은 저자극적이며 아무런 부정적영향을 주지 않는 천연원료인 수세미오이

에 주목을 돌리게 되었다.

소장 리권일은 《수세미오이즙에는 피부미용에 좋은 10여가지의 비타민과 사포닌, 광물질, 천연미량원소들이 풍부히 들어 있습니다. 특히 사포닌은 화장품원료에서 으뜸인 개성고려인삼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즙은 많은 단백질과 당질을 가지고있어 자연상태에서 오랜 기간 보관하기 어려운 부족점을 가지고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수세미오이즙의 이러한 단점

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사들이 처음 시도한것은 방부제기술을 리용한 화학적보관방법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수세미오이즙의 특이한 미용효과를 떨어뜨리거나 피부부작용까지 일으켰다. 여러해 거듭되는 실험끝에 이들은 선진기술의 하나인 생물공학적인방법으로 수세미오이즙을 발효시켜 오랜 기간 보관하면서도 미용효과가 뚜렷한 수세미오이즙피부보호액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질젖산균에 의한 발효법으

로 완성된 보호액은 보습성과 항산화작용, 세포재생효과가 뛰어나고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있게 해주는것으로 하여 기초화장품의 좋은 원료로 되었다.

연구사들이 수세미오이즙피부보호액의 특성을 밝힌데 의하면 이 보호액을 살결물이나 크림에 6~8%만 주입하여도 그 효과는 높아진다고 한다.

수세미오이즙피부보호액은 지난 시기 국내의 과학기술성과증서들을 받았으며 첨단기술제품으로 등록되었다.

이에 토대하여 연구집단은 수세미오이즙피부보호액의 기능을 더욱 개선하고 새로운 피부

보호제들과 미용효과를 나타내는 건강식품개발에 주력하였다.

이 과정에 이들은 금은화피부보호액과 피부보호제(고체형), 칩뿌리왕벌젖교갑, 삼지구엽초왕벌젖교갑, 머리칼건조방지제 등 20여가지의 제품들을 개발하였다.

수세미오이씨기름과 수유나무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머리칼건조방지제는 영양제, 탈모방지제의 기능을 다같이 수행하는 제품으로서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제품으로 등록된 이 제품들은 여러 전시회, 전람회들에서 우

수한 평가를 받았다.

많은 여성들이 이곳 미용제품들을 사용하고는 부드러운 살결과 광택은 물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주는 수세미오이의 천연효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라고 말하고있다.

곤유도새기술개발소는 연구력을 강화하여 누구나 즐겨 찾는 천연미용제품의 개발범위를 더욱 넓혀나가고있다.

글 김성경
사진 김강무



뒤져갈에의 만년사람들

글 김세현, 사진 김호

《네일내일이 따로 없다》



리인철

청류골재사업소는 증산의 동음을 멈추지 않고 맡겨진 계획을 남먼저 수행하는 단위로 알려져있다.

그 비결은 이 사업소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킨데 있다.

최근에만도 사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직류용접기와 준첩바가지개조, 차바퀴재생 등 생산에 이바지되는 여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였다.

그 앞장에는 리인철지배인이 서있다. 지배인부터가 창 의고안의 능수이고 발명가이다.

제37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 내놓았던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의 주제안자도 다름아닌 리인철지배인이었다.

그는 수년간 실천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를 포착하고 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가치있는 발명과 창 의고안을 하였다.

모래수분측정장치를 결합한 콩크리트혼합물생산공정의 확립성과가 바로 그러하다.

노동자들과 늘 현장에서 일하던 그는 혼합물에 모래의 수분량이 기준보다 많아진것을 포착하게 되었다. 그는 모래수분측정장치를 개발하여 수분을 정확히 측정한 기초우에서 그에 알맞게 콩크리트혼합물을 생산하는 안을 내놓고 대중을 기술혁신으로 불러일으켰다.

장치의 설계도 지배인이 도맡아하였고 그것을 질적수준에서 개발하기 위해 100여차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진지한 탐구와 노력끝에 측정장치는 개발되었으며 그것은 높은 생산성과로 이어졌다.

뿐만아니라 용접봉, 파쇄기보

호벽, 물속지층탐색기, 벨트지대로라 등을 자체로 만들어 도입함으로써 그 생산성을 배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리인철지배인은 노동자들에게 많은 착상도 튜겨주고 그들이 개발한 자그마한것이라 할지라도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이러한 속에 사업소의 노동자 리영민도 발명가로 자라났다.

화학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리영민은 4가지 합성수지원료를 독특하게 변성시켜 전색제를 얻어낸 다음 거기에 여러가지 첨가제를 배합하여 수성이나멜을 만들어냈다.

이 제품은 칠감의 건조시간이 짧은데다가 부착력, 내열성, 내수성, 내한성 등 모든 질적지표들이 우수한것으로 하여 각종 룰전기재의 도색재로뿐 아니라 철판, 목재, 타일, 바닥용칠감으로도 리용되고있다.

리영민노동자가 개발한 수성나멜은 국내특허로 등록되었다.

리인철지배인은 말하였다.

《나라일에는 네일내일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착상도 생기고 발명도 하게 되는것입니다.》

《진보》제품들에 어린 마음

최근 녀성들의 인기를 모으는 기능성화장품들가운데는 《진보》상표를 단 화장품도 있다.

얼마전 기름개구리추출물과 그를 포함한 《진보》계렬의 화장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로 등록되었다.

이 제품의 개발자가 창명무역회사 김지향이다.

기름개구리는 영양학적가치가 대단히 높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유용동물로 주목되고 있다. 특히 기름개구리의 수란관에는 단백질, 아미노산, 미량원소, 각종 비타민, 광물질, 핵산, 호르몬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유기체의 성장발육과로화지연, 건강장수에 매우 유익한 작용을 한다고 한다. 이런데로부터 기름개구리는 여러 나라에서 고급화장품과 영양식품생산원료로 리용되고있다.

기름개구리를 고급화장품, 식용가치가 높은 식료품의 원료로 리용하자면 무엇보다도 기름개구리를 인공적으로 양식할수 있는 기술부터 확립해야

하였다.

김지향이 이에 관심을 돌린것은 20여년전이다. 당시 학생이었던 그는 기름개구리양식을 성공시키기 위해 머나먼 지방으로 출장을 떠나던 아버지를 늘 보아왔다.

그러나 한해 또 한해, 실패와 좌절이 거듭되는 세월의 엇바깥속에 기름개구리양식기술확립의 성공여부에 대해 우려하며 많은 사람들이 도리머리를 저었다. 지향은 그런 아버지를 돕고싶었다. 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와 함께 먼길을 떠났고 수년간이나 지방에서 기름개구리양식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쳤다.

그만이 아닌 온 가족이 아버지의 《조수》가 되었다.

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기름개구리양식에서 성공하게 되었다.

김지향은 이에 기초하여 기름개구리추출물로 화장품과 영양식품 등을 개발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정말 좋은것을 연구했다고, 어떻게



김지향

되어 이 길에 나서게 되였는가 고 묻군 한다. 지향은 그때마다 아버지가 힘들 때마다 혼자 소리처럼 하던 말이 생각난다고 한다.

《사람이라면 생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 땅에 뿌렸한 자옥이 있어야 한다. 험한 길에 남긴 자옥은 쉽게 지워지지만 험한 길에 남긴 자옥은 길이 남는단다.》



상식

로화를 지연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식생활방법

사람이 늙는것은 몸안에 핵산이 부족하여 세포속의 염색소가 변화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식물로 핵산을 부단히 보충해주면 로화를 지연시키고 수명을 늘일수 있다.

- 매일 적어도 한고뿌의 파일즙이나 남새즙을 먹는것이 좋다.
- 매일 4고뿌이상의 물을 마시는것이다.
- 매일 생선한 홍당무우와 푸초, 파, 시금치, 미나리 등의 남새중에서 적어도 두가지를 먹는것이다.
- 매주 한두번씩 소고기를 먹는것이다.
- 매주 한두번씩 료두, 보라콩을 비롯한 콩류의 음식을 먹는것이다.

* * *

명승지 삼지연

삼지연은 백두산의 장군봉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28km 떨어져있다.

3개의 큰 못으로 이루어져있고 언제나 물을 한가득 담고 형제처럼 가지런히 놓여있어 삼지연이라고 부른다.

삼지연은 원래 오늘의 삼지연 부근의 하천이 지금으로부터 약

100만년전 백두화산과 그 주변 화산이 분출할 때 땅속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암이 흘러나와 막혀서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에는 크고작은 수많은 자연호수들이 있지만 화산활동의 영향을 받아 흐르던 강이 호수로 된것은 삼지연뿐이다.

삼지연에서 남서쪽끝에 있는

못을 1호못이라고 하며 너비가 약 10m나 되는 틈을 사이에 두고 1호못의 북동쪽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못을 2호못, 2호못의 북동쪽 약 370m 되는 곳에 있는 못을 3호못이라고 한다.

삼지연은 물이 흘러들어오거나 나가는 곳이 없는 호수이지만 눈비물과 샘물에 의하여 호

수물이 보충되는것으로 하여 언제나 맑고 깨끗하다.

삼지연부근에는 자작나무, 이깔나무, 분비나무, 사스레나무 등이 울창한 원시림을 이루고 있을뿐 아니라 고산지대에서만 볼수 있는 들쭉나무, 만병초를 비롯한 여러가지 떨기나무들과 아름다운 꽃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봄철에는 진달래, 철쭉꽃이 붉게 피어 삼지연의 자연경치를 더욱 돋구어준다.

숲속에는 우리 나라 천연기념

물인 삼지연사슴, 삼지연누렁이, 삼지연메닭 등 희귀한 동물들이 살고있다.

호수에는 참붕어, 종개, 버들치, 산천어 등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있다. 특히 삼지연의 붕어는 고산지대에서 사는 우리나라 특산종으로서 자원보호대상으로 되고있으며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있다.

맑고 푸른 하늘, 신선한 공기, 잔잔한 호수가에 아침해가 솟을무렵의 삼지연의 풍치는 그야말로 절경이다. 병풍을 두른

듯한 천고의 밀림속에 어둠이 깃들어 못새들의 지저킴소리도 차츰 잦아지고 사위가 고요해지면 달빛이 비껴든 삼지연의 물결은 은금빛으로 물든다.

이렇듯 삼지연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배경으로 태고연한 밀림속에 푸른물 출렁이는, 고산지대의 특이한 자연경관에서만 볼수 있는 풍치수려한 호수이다.

글 김지성

사진 조선중앙통신



천연기념물 백두산돌꽃

백두산돌꽃은 돌나물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서 우리나라의 백두산일대와 랑림산, 두류산을 비롯한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천연약재이다.

우리 나라에는 돌꽃, 바위돌꽃, 가는돌꽃, 왕돌꽃을 비롯하

여 여러종이 분포되어있다.

돌꽃은 뿌리에 40여종의 약용성분이 있어 정신육체적피로를 회복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약재로 간주되고있다.

세계적으로는 돌꽃을 《황금식물》이라고 부르며 보건부문

에서는 이상적인 강장제로 쓰이고있다.

백두산돌꽃은 2026년 3월 17일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었다.

글 김수정
사진 조선중앙통신



민속무용 《수박춤》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찬란한 민족문화를 발전시켜오면서 지방에 따라 특색있는 민속무용들을 창조하여왔습니다.

해당 시기, 해당 지방 주민들의 풍부하고 다양한 생활과 풍속, 지향 등을 담으면서 단순한 춤동작으로부터 일정한 형식을 갖춘 춤으로 발전풍부화된 민속무용은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로 됩니다.

이번호에서는 예로부터 우리 남성들속에 즐겨 전해지고있는 민속무용 《수박춤》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손으로 몸의 여러 부위들을 치면서 추는 춤으로서 수박춤을 일명 《손벽춤》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 춤은 평안도 랑림(오늘의 자강도)지방에서 전해져온 군사민속무용입니다. 이 고장 남성들은 수박춤이라는 무술을 련마하는 과정에 기본동작들을 룰동화한 춤가락들을 창조하여 체력단련과 무술훈련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왔습니다.

수박춤은 반봉건적인 내용을 담은 민속무용으로 추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춤은 남성들의 손벽치기, 손으로 몸의 여러 부위를 치는 동작들이 기본으로 되어있습니다. 느린 타령장단과 빠른 휘모리장단에 맞추어 손으로 가슴치기, 무릎치기, 땅치기, 상대의 어깨치기, 위풍있는 걸음걸이와 몸짓 등 특색있는 춤동작들은 남성들의 용감한 기개를

반영하고있을뿐 아니라 락천적인 정서와 감정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손벽을 힘있게 치고 팔을 쭉 벌렸다가 가슴을 치는 동작과 손바닥으로 가슴과 무릎에 장단을 치는 동작, 발을 높이 앞으로 들면서 옆으로 차듯 벌리며 내짚는 동작, 두팔을 깎은 몸가짐에서 주먹을 힘있게 쥐고 몸을 좌우로 흔들며 걸어나가는 등 수박춤의 여러 동작들은 남성들의 활달한 성격과 위풍, 위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춤은 수박회의 주되는 동작들로 만들어진것으로 하여 지난날 사람들의 깊은 관심을 끌면서 우리 나라의 여러 지방들에 많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박춤의 동작들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민속춤가락의 하나로 널리 보급되고있습니다.

무용예술교육에서는 수박춤의 춤가락들을 교육내용에 반영하여 우리 민속무용의 멋을 적극 살려나가고있으며 무용창작에서도 남성무용작품들에 이 춤가락들을 적용하고 살려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강구되고있습니다.

오늘날 이 춤은 독자적으로 형성되지는 않지만 발을 구르는것을 비롯하여 박력있고 활달한 춤가락들은 많은 작품들에 반영되어 남성적인 성격을 뚜렷이 나타내고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들을 보면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민속무용들인 《해불춤》, 《씨름

춤》, 《사냥춤》, 《룡악산무술터》, 《락랑의 사냥군들》, 《평양성의 무사들》을 들수 있습니다.

피바다가극단 조선무용연구소에서는 예술단들과 교육기관들에 나가 정기적으로 수박춤기법에 대한 토론을 조직하고 우수한 특징들을 잘 살려나가기 위한 연구도 적극화하고있습니다.

민속무용들을 전습, 보급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피바다가극단 조선무용연구소 연구사인 공훈예술가 윤상흠은 《우리의 민속무용유산들을 보면 춤가락들이 복잡하지 않고 명백하며 익히기도 쉬운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민속무용유산들을 발굴하고 전습, 발전시키는 과정에 역시 전통적인 우리의 춤가락이 제일이며 우리 인민의 감정과 성격에 꼭 맞는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는데 대하여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 하였습니다.

동포여러분, 인민의 슬기가 비낀 우리의 춤가락은 그 어느 민족도 흉내낼수 없는 우리 나라의 귀중한 유산입니다.

조선춤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징이 잘 살아나는 수박춤을 감상하느라든 저도모르게 우리 민속무용의 멋을 체감하게 될것입니다.

본사기자 김성경

흑 산

645년 고구려의 안시성인민들이 성주인 양만춘의 지휘하에 외적을 반대하여 싸우던 때의 일이다. 당시 적들은 수만의 군사로 안시성을 포위하고 수십 일동안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하루에 6~7차례씩 공격하였으나 성을 점령할수 없었다. 그렇게 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성벽에다 60일동안에 50만공수를 들여 흙산을 쌓았다.

적들이 안시성보다 두어길이나 높은 흙산을 쌓고 그우에 올라가 성안을 들여다보면서 화살을 쏘아대자 안시성을 방어하던 군사들과 인민들은 매우 불리하게 되었다.

그러던 8월하순 어느날이었다. 흙산의 한모퉁이가 무너져 내리면서 성벽을 치는 바람에 성벽 한 부분이 깨어졌다.

《성이 깨어졌다.》

이렇게 소리치는 방어자들은 당황하였다. 어찌할바를 몰라하던 방어자들은 성문우에서 싸움을 지휘하고있는 양만춘에게로 달려갔다.

《성주님, 성이 무너졌나이다!》

《뭐라구?》

양만춘은 놀라며 성에서 내려 성이 무너진 곳으로 갔다.

과연 성이 무너져 흙무지에

묻히우고 행하니 흙산을 향해 열려져있었다. 적들은 성이 무너진것을 알고 창칼을 비껴들고 함성을 지르며 공격하여왔다. 이 위태로운 순간 양만춘은 성안이 찌렁찌렁하도록 소리쳤다.

《무너진 성으로 어찌 적들만 들어올수 있는것으로 생각하느냐? 적들을 반격하라고 성이 열린것이다!》

그 소리에 방어자들은 눈이 번쩍 트이었다.

《열려진 성으로 모두 떨쳐나가 흙산을 빼앗자!》

양만춘은 칼을 휘두르면서 적들을 향해 반격해나갔다. 이것을 본 성방어자들은 사기충천하여 일제히 양만춘의 뒤를 따라 흙산으로 돌진해올랐다. 적의 약점을 안 성방어자들은 여윌게 적들을 쳐갈기면서 순식간에 흙산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성을 위협하던 적의 흙산은 방어의 흙산으로 변하게 되었다.

뜻밖에 큰 승전을 거둔 안시성방어자들은 너무 기뻐 환성을 올리였다. 그리고 위기에서 성을 구원한 양만춘에 대하여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성주님, 잠시나마 당황했던 우리가 죄스럽나이다.》

《성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승전은 생각지도 못했을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호탕하게 웃고난 양만춘은 이렇게 말하였다.

《병서에 있는대로 했을뿐이다. 병서에는 적과의 싸움에서 지형을 잘 쓰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급변한 정황도 리용하기에 달린것이라고 본다. ...》

《잘 알겠나이다.》

적들은 흙산을 빼앗으려 3일동안 련속 공격을 들이대었으나 흙산밑에 시체더미만 쌓아놓을 뿐이었다.

적들은 승산없는 오랜 싸움에서 사기를 잃고 주저앉기 시작했으며 식량마저 떨어져 굶주림에 시달리였다.

이리하여 적들은 고구려 북쪽 관문의 한개 성인 안시성의 군사들과 인민들의 방어에 부딪쳐 88일간이나 싸우다 실패하고 제 나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시 외적의 우두머리는 참패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고구려 군사들과 인민들의 완강한 애국심에 감동되어서인지 연개소문에게는 활과 군복을, 양만춘에게는 겹실로 짠 명주 100필을 보냈다.



상 식

고려의 유명한 먹과 붓

고려시기 우리 인민들이 생산하고 발전시켜온 먹과 붓은 그 질이 매우 높아 세계적으로 유명하였다.

고려후반기에 먹을 송연목이라고 하였는데 그중 이름난것은 맹주(맹산), 순주(순천) 등지에서 생산된것이었다. 12세기말에 맹주방어사로 부임하였던 리인로는 《과한집》에서 자신이 맹주 공암촌 목소에서 500자루의 먹을 만든 경험을 자랑하였다.

고려의 먹은 그 질이 우수한것으로 하여 이웃나라에서도 높이 평가되었다.

고려시기의 붓도 그 종류가 다종다양하였다. 이러한 먹과 붓생산은 국내수요를 충족시켰을뿐 아니라 해마다 많은 량이 수출되었다.

고려의 먹과 붓이 세상사람들로부터 높이 평가되어 주요수출품으로 된것은 우리 인민의 먹과 붓생산기술이 매우 뛰어났다는것을 보여준다.

* * *

유모아

문장고치기

문제: 《<누나가 공장으로 간다.>라는 문장을 미래형으로 고치시오.》

답: 《누나의 딸이 공장으로 간다.》

* * *



조선장기수풀이 (44)

장기격언

뛰는 쪽은 없애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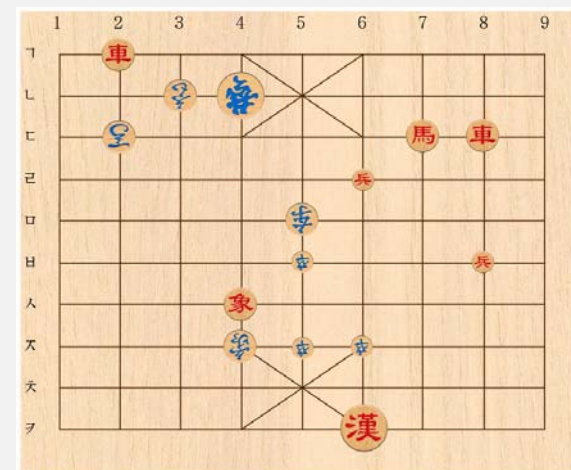
호상 《량차》가 없을 때 상대방의 뛰는 《쪽》 즉 《말》, 《상》을 잡아없애야 함을 뜻하고있다.

특히 마감단계에서 호상 다 《차》가 없을 때 《말》, 《상》의 역할이 기본으로 되는것과 관련되고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뛰는 《쪽》을 먼저 잡아없애고 자기의 뛰는 《쪽》은 살려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있기도 한다.

장기수풀이 (43)에 대한 답

ㄴ5말ㄱ7, ㄹ1포ㄹ7, ㄱ4포ㄱ4, ㄴ5차ㄴ7, ㄱ5상ㄱ3, ㄹ4차ㄹ5, ㄱ3상ㄱ6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한다.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